



[IDF 동향] '지속가능한 유제품 공급을 위한 비전 공유' - IDF 리더스 포럼 열려

- 기후변화 완화는 물론 영양소 공급, 지역사회 발전 등 낙농업의 노력 강조



IDF는 지난 10월 13일 개최된 데어리 리더스 포럼(Dairy Leaders Panel)을 통해 세계 주요 유업계 관계자들과 함께 지속가능한 유제품 공급을 위한 비전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포럼에는 덴마크 알라푸드, 프랑스 락탈리스, 중국 멩뉴와 미국 낙농가협회의 CEO와 대표가 참석해 낙농산업이 기후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균형 잡힌 영양소 공급은 물론 지역사회 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이들은 낙농업계가 우유의 우수성과 지속가능성 및 동물복지 향상 등 낙농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발전에 대해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한다는데 동의했으며, 최근 식물성 대체우유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위기라 생각하지 말고 소비자들의 니즈에 맞는 다양한 유제품을 선보이기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설명했다. < 출처 : IDF 본부, 10월 22일자 >

[지속가능] 호주 낙농업계, 지속가능 패키징을 위한 로드맵 마련

- 포장재 절감, 재활용 포장재 개발, 재활용률 향상 등 도모



호주 정부가 2025년까지 모든 포장재를 재활용, 재사용, 생분해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낙농업계가 지속가능 패키징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했다.

최근, 데어리 오스트레일리아(DA)와 호주유제품연맹(ADPF)은 호주포장산업규약기구(APCO)와 협력해 지속가능한 패키징 로드맵을 마련해 현재 낙농산업의 포장재 현황을 살펴보고 유제품 포장재의 지속가능성 향상을 위한 비전과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 있다.

낙농업계는 포장재 절감, 재활용 가능한 포장재 개발, 포장재의 재활용률 향상 등을 위한 방향을 탐색하고 구현해나갈 계획임에 따라 업계관계자들의 협력을 당부했다.

한편, 낙농업계는 지난 2019년부터 2년여에 걸쳐 약 4억 7,600만 달러(약 5,600억원)의 자본을 투자해 포장 폐기물 절감을 위한 지속가능 이니셔티브를 실시하는 등 2025년 정부의 포장재 절감 목표 달성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 출처 : foodanddrinkbusiness.com.au, 10월 21일자 >

위 내용은 세계낙농동향을 전파하기 위해 해외 낙농사이트에서 뉴스를 발췌해 번역한 것으로 낙농진흥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위 내용을 기사 작성시 활용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